

캠퍼스의 작은 혼란과 개선 제안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김 효 철

공과대학이 공릉동 캠퍼스에 있던 1977년 여름 공학캠퍼스의 이전설계를 위하여 건축수요를 상세하게 조사한 바 있었다. 이듬해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관악산 공학관 건물 내부에 구체적으로 실험시설 배치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관악 캠퍼스 건설 본부로부터 보내준 건축도면을 확인하였더니 상대적으로 사용시간이 적은 학과 실험실은 남향으로 건축되는 36동에 배치되었으며, 상주하여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해야 하는 교수연구실은 동·서향으로 건축되는 34동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관악캠퍼스 건설본부에 두 건물의 자리바꿈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건축배치학의 논리에 배치되는 제안이라는 이유에서 일축된 바 있었다.

1979년 겨울 관악산으로 대학의 이전을 마치고 연구실을 34동 1층에 마련하였는데 원로 교수님들은 동향 방에 자리 잡으셨으며 젊은 교수들은 서향 방에 자리 잡게 되었다. 동향 방은 반지하나 다름없어서 관악산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35동의 상층부만이 보이는 환경이었다. 이에 대하여 서향 방에서는 학생들이 붉은 광장으로 부르는, 붉은 벽돌이 깔린 네모난 건물 사이의 마당이 보이고 오후에는 강한 햇빛과 열기 때문에 블라인드 커튼을 닫고 살아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인접한 33동의 경우는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동을 하려면 같은 건물 내에서는 이동경로가 없고 반드시 옆 건물의 계단을 이용하여 층간 이동 후 33동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배치이었기에 건축배치학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1983년 학과의 실험실을 건축하고 본부에서 41동과 42동의 건축물 현판을 가져 왔을 때 호동 표기는 본부에서 가까운 건물의 순번이 빠르다는 설명을 이유 있다고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실로 배포된 건물 호동이 표기된 캠퍼스 배치도를 받아보고 당황스럽게 생각하였다. 건물 호동 부여에 무엇인가 건축배치학에 버금가는 어떤 논리가 있어서 결정하였을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조선학을 전공한 나로서 그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였었다. 다만 건물 호동순번이 인문·사회과학계열(1~20), 자연과학계열(20~30), 공학계열(31~42), 음악·미술 계열(50~59), 본부 직할기구(60~65), 지원기관(70~) 등의 순서로 배치되었다고 나름대로 짐작하고 대학에서 기초과학분야를 응용과학분야보다 존중하는 뜻을 담아서 표기하려는 의도가 있었나 보다 생각하였다.

상당시간이 지나며 서울대학의 발전이 두드러져 새로운 건축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며 특정 번호대가 특정 학문분야를 뜻하는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20번대의 건축물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자연과학대학의 실험실이 40번대 후반의 건축물번호를 사용하게 되었고 40번대 초반까지를 사용하던 공과대학이 신공학관을 건축하며 300번대를 사용하여 결번 없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던 원칙도 바뀐 듯하였다. 건축물의 번호를 건축계획 승인단계에서 부여한 연후에 사용가능한 대지를 물색하여 건축한 결과, 건물 사이의 기능적 연계성이나 관리의 편의성이 배제된, 지금의 혼란스러운 배치상황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들어서서는 기존의 건물을 기준으로 부 번을 붙여서 표기하거나 유사기능을 기준으로 건물 번호가 붙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42동에 인접하여 42-1동이 건설되었으며 계획단계로부터 122-1동~122-7동 같이 유사 기능의 건물에 동 번호와 부 번을 함께 부여하기도 하였다.

민족의 대학으로 건설되었기에 “누가 민족의 장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바라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였는데 대학의 발전에 따르는 캠퍼스의 변모를 바라보면 무엇을 느낄 것인가. 민족의 장래가 역동적으로 끌어 오르는 열기를 느낀다면 다행이겠으나 무계획과 혼돈스러움으로 비추어지지 않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적어도 민족의 대학이라면 종합화 초기로부터 당당하게 국민에 제시할 수 있는 학문적 배경과 미래상을 가지고 계획한 바에 따라 얻어진 결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상에 공감하며 다 함께 노력한 결과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9동을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학교에서 28동, 30동, 31동 근처에서 건물을 찾지 못하고 동 떨어진 141동과 142동 사이에서 목표 건물인 29동을 찾았을 때 무엇을 느낄 것인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혼돈스러운 건축물 인식방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조차도 지번표기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하나의 재개발지의 사업규모에도 못 미치는 매우 작은 규모의 관악캠퍼스의 건물표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라 생각한다. 세월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형은 바뀔지라도 위치정보는 바뀌지 않을 것이므로 캠퍼스 전체에 배치된 건축물의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방안을 고안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 업무는 당연히 학내의 인력만으로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세월이 지나고 용도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같은 정보로 건물을 표기함으로써 영속성이 보장되고 변동상황에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불합리성이 제거됨으로 인한 수많은 효율성이 창출될 것이 믿어지므로 반드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